

순환매만 반복되는 코스닥... “시장 이끌 주도주가 없다”

바이오 업종 투자심리 악화된 영향 기업 이슈로 업종 전반 신뢰 하락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

“요즘 코스닥 투자자들의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이용현씨(56)는 “코스닥은 도대체 ‘장투’(장기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라며 이같이 털어놨다. 코스피가 7천피 시대를 열었지만 코스닥은 ‘천스닥’(코스닥 1000) 초반에 머물고 있다. 26년 전 찍은 최고점(2834.40)은 더더욱 갈 길이 멀다.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올해 들어 시가총액 1위 자리가 여러 차례나 바뀔 정도로 업종 간 순환매가 빨라진 가운데, 바이오·이차전지·로봇 등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다. 시총 비중이 높은 바이오 기업들은 기업들의 불성실공시 및 임상결과 등에 실망해 발을 빼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는 13.50% 상승한 반면, 코스닥



ChatGPT로 생성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한 코스피와 반대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약세로 인해 상대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코스닥지수’ 관련 이미지.

지수는 0.57% 상승에 그쳤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 위치한 바이오 기업들의 부진 영향이 크다. 지난달 들어 이날까지 KRX 반도체 지수는 64.41% 상승했으나, KRX 헬스케어 지수는 4.60%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KRX 테마지수 중 떨어진 지수는 KRX 헬스케어 지수와 KRX 300 헬스케어(-5.03%), KRX K콘텐츠(-1.77%)뿐이다.

정희찬 삼성선물 연구원은 “지난 4월 동안 코스닥지수는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바이오 업종의 투심 악화 영향으로 코스피 대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며 “지난달 중 불성실공시 및 임상결과 실망 등 개별 종목 이벤트가 업종 전반 투심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스닥 시총 ‘톱10’에 오른 바

이오 기업의 절반 이상이 하락세다. 특히 삼전당제약은 지난 3월 말 장중 120만원대까지 치솟으며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기술력과 ‘주가 부풀리기’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는 40만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개미들은 코스닥을 외면하고 있다. 코스콤ETF CHECK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1개월 동안 ‘KODEX 코스닥150’을 6972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를 6124억원씩 순매도했다. 각각 해당 기간 순매도 2·3위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기대를 건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통해 한계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고, 코스닥 시장을 세그먼트로 나눠 승강제를 도입하는 등을 담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민간이 뒷받침하는 활성화 정책은 시장의 질적 변화를 자극할 것”이라며 “정책 초기에는 부침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성장동 후 코스피에 뒤지

지 않는 시장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산운용사들도 코스닥지수 상승 기대감을 반영해 관련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30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코스닥 유망 종목에 투자하는 ‘삼성액티브 코스닥FOCUS 펀드’를 출시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앞서 ‘KoAct 코스닥액티브’도 출시하면서 코스닥액티브 ETF 시장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코스닥액티브’, 한화자산운용의 ‘PLUS 코스닥150액티브’ 등이 존재하며 현대자산운용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도 코스닥액티브 ETF 상품 출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운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운용2본부장은 “작년부터 본격화된 대형주 상승 이후에는 중소형주로 상승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성장펀드의 판매 등도 코스닥 중소형주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godhe@metroseoul.co.kr

“아직 저평가”... 삼전·하닉 목표가 줄상향

증권업계, 실적전망치 상향 조정 메모리 반도체 성장 가능성 반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다.

7일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50만원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경기 우려를 반영해 하향했던 목표 주가수익비율(P/E)을 이전 수준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적전망치도 2026년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338조원, SK하이닉스 262조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3%와 4%씩 상향하고, 2027년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494조원, SK하이닉스 376조원으로 각각 18%, 15% 상향조정했다고 전했다.

한 연구원은 “최근 메모리 주가 랠리의 핵심은 인공지능(AI) 관련주 내 메모리에 대한 현저한 저평가 인식이며, 이는 메모리 ‘이익창출력’의 구조적 제고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업황 강세를 수급에 따른 일

시적 현상으로 해석하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메모리 재평가는 여전히 초입에 불과하다”면서 “주가 랠리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P/E는 각각 6.0배와 5.2배 수준이다. 한국 메모리에 대한 매수주체 확대를 감안하면 저평가 매력 부각은 아직 시작단계”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20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35% 올려잡았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실적 추정은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279조원과 398조원을 유지한다. 다만, 수급주체 변화가 감지되기에 글로벌 메모리 업종 주가순자산배수(P/B) 평균 4.5배(기존 3.4배)를 즉각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목표가를 12개월 선행 P/E 배수로 환산하면 7.6배에 불과하다. 이제 막 정상화되는 모습”이라면서 “최근 서버 중앙처리장치(CPU) 수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성장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고 동사의 강점

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동향도 호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교보증권도 삼성전자에 대해 메모리 반도체 호황의 강도와 지속성이 확인됐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22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과 함께 서버용 DDR5, 모바일 LPDDR5X 수요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실적 모멘텀은 크고 주주환원책은 명확하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33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올렸다. 채민숙 연구원은 “범용 D램과 낸드가 공급 제약과 LTA(장기공급계약)를 바탕으로 높은 ASP(평균판매단가)를 유지하는 가운데 2026년 가격 상승이 제한됐던 HBM의 ASP도 상승할 경우 2027년 메모리 사업부 이익 규모는 예상치를 계속해서 상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전자·하이닉스 2배 추종 ETF 나온다

미래에셋증권 발간 보고서 적극적 유입 기준 5.3조 추정

5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좇는 상장지수펀드(ETF)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사례 적용 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유입은 소극적 유입 기준 1조7000억원, 적극적 유입 기준 5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주, 기존 반도체 ETF, 홍콩 ETP 등 이전 수요가 총액의 85~88%를 차지하며, 신규 수요는 12~15%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개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직접 매매(IBKR) 개시는 변수 요인이

며, 단일 종목 교육 이슈가 별도로 필요한 점도 일정 부분 허들로 작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보통주 매도 요인(소극적 -1조1000억원, 적극적 -3조4000억원)과 신규 ETF의 현물 매수(소극적 +1조7000억원, 적극적 +5조3000억원)가 맞물리면서 순영향은 우호적(소극적 +6000억원, 적극적 +1조8000억원)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외국인 등 기타 주체의 활동 및 시가총액 규모를 감안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기존 레버리지 ETF에서의 적극적 유출을 감안하더라도 신규 자금 유입이 대부분 반영되며 프로그램 매수 및 쏠림 유발 가능성이 크다”고 윤 연구원은 짚었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증권 ISA 고객자산 15조 돌파

순입금액 15개월 연속 1위

미래에셋증권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 자산이 15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1월 말 10조원을 돌파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5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중개형 ISA 순입금액 기준으로 15개월 연속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투자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ISA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 예상 세금·수익을 미리 계산해주는 ‘절세 플래너’ 서비스 등이 자금 유입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ISA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이용자는 2만명을 넘어섰다. 성장형부터 안정형까지 투자 성향별 자산배분 전략을 제공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리밸런싱도 지원한다.

올해 1분기 기준 미래에셋증권 ISA 가입자 가운데 만기 해지로 절세 혜택



을 받은 고객은 5100여명으로 집계됐다. 절세 규모는 총 24억원으로, 계좌당 평균 47만원 수준이다.

/허정윤 기자

코스피200 지수 기초자산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 ETF의 순자산이 5조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순자산 4조원을 돌파한 이후 약 1개월 만에 순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 증가했다. 현재는 순자산 5조2421억원을 기록 중이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 ETF는 2024년 12월 상장 이후 약 1년 6개월만에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 ETF는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주 단위 콜옵션 매도를 통해 연간 약



15% 수준의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추구한다. 여기에 코스피200 종목 투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약 2%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더해 연 17%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한다.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약 1.42%의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